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6주일
제34권 44호(가례) 2014년 9월28일

[묵상]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꿀벌은 우리에게
재미있고 소중한 교훈들을 수 없이 가르쳐 준다.
나름대로 맡은 업무 수행에 철두철미하다.
여왕벌은 평생 알만 낳는데
만일 알 낳는 일에 소홀하면,
백성인 일벌들이 데모를 일으켜 알을 낳게 하거나 아주 갈아
치운다.
여왕이라 해도 군림하거나 나태함을 부리지 못하고
오히려 일벌들에 의해 좌우된다.
일벌들은 집을 짓고 꿀을 가져오며 새끼를 기르고
온갖 일을 다 하며 여왕을 부린다.
여왕을 중심으로 모인 왕국이면서 고도의 민주주의이다.
백성이 주도권을 갖고,
여왕은 왕의 본분만을 실천할 뿐이다.
동물들의 세계에선 악속을 어기고 본분을 소홀히 하면
추방과 죽음 그리고 파멸만이 기다릴 뿐이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튼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30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오후 1:00 ● 사목회장단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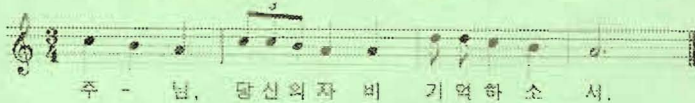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민찬기 요한, 권수봉 요안나, 성 빈첸시오 드 폴, (생)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박무성, 전시웅 요한, 이철우 야고보, 김종환 야고보, 안병무, 민찬기 요한, 임규예 분다 (생)김관기 라파엘 & 김명제 아가다, 김준호 크리스토퍼, 김남세, 이복임 엘리사벳, 김부권 요한, 진은란 아녜스, 석순영 아녜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제키엘 (Ezekiel) 18,25-28

화답송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은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견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길 알게 하신다. ㉠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2,1-11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 음 마태오(Matthew) 21,28-32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401	191	239
봉헌	368	346	255
성체	402	282	309
파견	352	345	343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예언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요엘 3,1).

제1장 성령은 누구신가?

3. 교회와 성령

3) 진리와 자유의 영

예수님과 함께하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오신다. 그리고 그들을 내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 이로써 구약의 예언자들, 특히 예제키엘이 예언한 바가 이루어졌다. 그는 하느님께서 장차 새 계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 그들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넣어 주시어, 그들을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것이다.(예제 36,26-28) 교회의 시작에 함께하신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마치 인체 안에 있는 영혼과 같이 교회의 영적 생명 원리로 작용하신다. 곧 성령께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을 풍성히 내려 주시고, 이 은사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과 참된 자유 안에서 만방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계시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어, 세상에 구원의 표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

제2장 성령 이해의 역사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펼친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성령에 관해 신학적으로 숙고하게 된다. 성령에 대한 신학적 숙고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로 수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성령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교회의 공적 가르침이 서서히 정립되었다.

1. 성령에 관한 교부들의 증언

교회 시작부터 3세기 동안은 교회가 박해를 받던 시기로서, 아직 성령에 대한 본격적인 신학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문헌에서 성령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저술된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디다케-』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마태 28,19 참조)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 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나란히 열거함으로써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한 하느님이시면서도 구분된 위격을 지니신다는 것을 암시한다.

<◆계속>

듣기에 부담되는 불편한 말씀?

언젠가 신문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 구자범님이 쓴 ‘좋은 귀’를 가진 지휘자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 입장에서 ‘좋은 귀’를 가진 지휘자라면 자기 연주가 조금만 틀려도 대변에 그것을 잡아내고 지적할 테니 매번 긴장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휘자는 실수로 틀린 소리가 났을 때도 곧바로 그 단원을 쳐다보지 않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본당신부 입장에서 크게 공감이 됩니다. 신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一喜一悲),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이 생각나서 혼자 슬며시 웃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나의 편안함’이 우선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사회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이 자신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주는 적당히 ‘무딘 귀’를 가진 지휘자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만한 ‘무난한 지도자’(사목자)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대할 때마다 성경말씀이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해방의 말씀)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겉고러운 말씀’으로 들리기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번째 독서에 나오는 에제키엘 예언자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자는 어느 시대나 기득권자들에게 반대 받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늘 입바른 얘기로 돌직구를 날리는 그들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오늘 복음 또한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예’라고 대답만 하고, 전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이들보다는,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들, 세리와 창녀와 같은 ‘변방의 사람들’이 먼저 하느님 나라에 여갈 것(마태 21,31 참조)이라는 소식이 곱게 들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리 때나 강의 때 교우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 즉 예수님의

행동원칙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의장벽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와 죄인들, 소수자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는 몰라도 아주 절망적인 얘기들이 쏟아집니다. “강한 자가 끝까지 살아남은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혹은 “억울해? 억울하면 출세하면 될 거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출세지향적 그리고 성과주의, 일등주의를 부추기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조금 전 교리 때 나누었던 예수님의 행동원칙, 뒤쳐진 자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갖고, 남을 배려하고, 함께 연대(連帶)하며,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는 ‘지킬 교리’가 과연 실생활에서 얼마나 호소력을 가질까 하는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행동원칙이 더더욱 필요하고 유효한 ‘목마른 시대’는 아닐까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나에겐 ‘생명의 말씀’인지, ‘불편한 말씀’인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찬 신부 / 오금동 성 요셉성당 주임

내가주는 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로 되진 않더군요.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았다 해도

벌어졌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일로 되돌려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이 깊어질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끝없이 헤집어대는,

별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만큼에서 머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체스카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례 테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태훈 아우스딩	박혜경 레나타	정영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목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목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9월 순교자 성월

순교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며, 예수님께서 기꺼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그들도 짊어졌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순교 선열들은 이 세상에 참된 삶과 생명을 일깨우고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모진 고문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많은 이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고,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순교자 성월특강

- 일시 : 오늘 주일오후1시
- 장소 : 본당
- 강사 : 김재현 성우안토니오 신부(성 그레고리성당)

◆카이노스 성장세미나...대상 : 기초성령세미나 이수하신분

- 일시 : 10월3일(금)오후4시~5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 드폴 피점센터
- 참가비 : \$100
- 신청 :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요셉회 9월 모임안내

- 장소 : 강당, 11시미사후
- 장수사진이 나왔습니다. 확인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요셉회 회장 정기은 비오 ☎(310)780-2789

◆대건회 단합모임

- 일시 : 9월27일(토)~28일(주일)
- 장소 : 코로나
- 문의 : 김병록 요셉 대건회장 ☎(213)446-8234

◆LA 대교구 다민족 미사참례 안내

LA대교구 대주교님과 교구내 40여개국 신자들이 각국의 민족의상을 입고 봉헌하는 다민족 미사에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0월4일(토)오전 9시 30분
- 장소 : LA대교구 주교좌 성당
- 준비 : 남,녀 모두 한복착용

◆자마이카선교 후원금 모금 음식판매

- 일시:10월5일 11시 미사후
- 음식:캘리포니아 롤 : 소공동체 \$5, 냉커피 : 청년회\$1
- 기금이익금은 전액 선교후원금으로 보내드립니다
- 문의 :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율리아 ☎(310)780-9055

◆오바마 건강보험 / 국민 건강보험 / 저소득 건강보험 세미나

- 내용 : 신청방법, 혜택요약, 사용방법등
예) 무료독감주사및 피점사받는 법
- 일시 : 10월5일 (주일) 미사후 12:30 교실
- 강사 : 사회복지분과장 이정훈 안셀모 ☎(310)908-8823

◆2015 메디케어/ 메디칼 통합건강보험과 메디칼 플랜변경내용

- 일시 : 10월 12일 11시미사후 12:30
- 장소 : 교실 또는 성전
- 주최 : 안나회
- 강사 : 사회복지분과장 이정훈 안셀모 ☎(310)908-8823
안나회장 한춘선 루시아 ☎(310)738-4387

◆멕시코 선교용 학용품 수집...사무실내 지정공간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9월28일(주일) * 토동1반 : 카레라이스 (\$3)
* 주일학교 : 샌드위치(10.11학년)
- 10월5일(주일) * 소공동체 : 캘리포니아 롤(\$5)
청년회 : 냉커피(\$1)
* 주일학교 : 카레라이스(8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장미순 김관기 김대우 김성택 김영길 김재영 김 준 박영룡 박진수 박현주 서영주 신순철 안재경 오상준 육근주 이민상 이우성 이종선 이형삼 장수창 정규숙 정훈모 조준제 최이원 최 일 최재은 한창주	장미순 김관기 김대우 김영길 김 준 박영룡 박현주 신순철 이민상 이우성 이일길 이형삼 정규숙 정훈모 조준제 최이원 최재은 한창주
합계 : \$3,645	합계 : \$1,305
주일미사 헌금 : \$2,164 익명 : \$ 325	광고후원 : \$50(산타리타한의원)

공지사항

◆ 하느님의 자녀보호(Protecting God's Children for Adults) 교육

- 영어 Virtus Training : 10월11일(토)오전9시~12시
- 한국어 Virtus Training : 10월12일(주일)오후1시~4시
- 장소 : 본당 2층교실
- 대상 : 아이들과 관련되어 봉사하시는 모든 분
- 문의 : 서정우 프란치스코 ☎(310)408-9070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 주일학교 학부모 간담회

- 일시 : 10월 5일 (주일) 오후 1시
- 장소 : 성전

◆ 주일학교 F.I.G.S.Jr. & F.I.G.S. Lock-in

- 중등부 : 10월10일 (금) 오후 6시 30분 ~11일(토) 오전 10시
- 고등부 : 10월24일 (금) 오후 7시 ~25일(토) 오전 10시
- 기본준비물 : 세면도구, 침낭, 여벌옷, 재킷

◆ 한국학교에서 함께 봉사하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영어 청년 피정 2014 Fortes in Fide Young Adult Retreat "Sacred Silence"

This is a general retreat for English speaking young adults of the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Southern California.

Past 2 years about 70 people participated in this great opportunity to renew one's faith and meet others.

- Date : Oct. 17(Fri)~19(Sun)
- Cost : \$ 100
- Ages : Single Young Adults -21 years old and up
- Location : Kamp Kuper, Escondido, CA
- Registration Deadline : Oct. 5th (Sun)
- More INFO : Helen Wie (helenwie7@gmail.com)

◆ 성삼한인성당 35주년 기념 바자회

- 일시 : 10월4일(토) AM11:00 ~ PM 09:00
10월 5일(주일) AM11:00 ~ PM 05:00
- 장소 : 성삼한인성당 주차장 및 별관
- 행사 내용 -가전 및 전자제품, 의류, 가구, 잡화(신상품및 기증품)
-먹거리 장터, 경매, 각종공연및 장기차량

◆ 성 프란치스코 성당 기금마련 2014 Fair 안내

- 일시 : 10월 31일(금) ~ 11월 2일 (주일)
- 행사 내용 : 놀이기구와 게임등
- 입장티켓 : \$20 / 명 / Day, 놀이기구 9개 포함
- 티켓은 본당사무실에 위탁판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서로 인사 하시다. ☺

소공동체 9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최성자 카타리나 991-4838 9/20(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박선화 안나 325-3888 9/13(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9/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9/21(일) 본당의날 행사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9/21(일) 본당의날 행사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9/21(일) 본당의날 행사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엄영숙 마리아 625-3312 9/21(일) 본당의날 행사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소화테레사 634-6923 9/21(일) 본당의날 행사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9/13(토) 오후 6시 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욱 올리아 404-1607	이 복임엘리자벳 905-2225 9/15(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금자 테레사 749-3151 9/13(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남성철 베네딕도 408-1443 9/12(금) 오후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793-6157 9/12(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9/6(토) 정오12시 성당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유현주 마리아막달레나 617-3568 9/9(화) 성당

이번 주 단체 모임

본당의 날 행사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의

오후1시

124위 시복특집 < 4 > 원시장 베드로(1732~1793)? 원시보 야고보 (1730~1799)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 거룩한 기쁨으로 이날을 지내 하고 또 천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나눔으로써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려야 합니다...

성격이 사납고 야성적인 원시장 베드로는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6~57세 무렵, 하느님을 알고 신앙을 실천하면서 성격이 변하여 어떠한 일에서나 온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한편 60세가 다 되어서 사촌 동생 원시장과 함께 천주교 교리를 듣고 입교한 원시보 야고보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가난한이들을 위해 재산을 희사하고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였으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791년 신해박해가 일어나자 원시보는 친구들의 권고에 따라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으나 원시장은 포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원시장은 여러 달 옥살이 하면서도 틈틈이 포졸과 형리들에게 전교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우가 그를 만나러 옥으로 찾아왔고, 이때 원시장은 비로소 그 교우에게서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시장은 갖가지 혹형을 받은 뒤 1793년 1월 28일, 61년간의 삶을 하느님께 바쳐 순교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뒤에 이 소식을 들은 원시보는 함께 순교의 영광을 얻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천주교를 공공연하게 실천하면 사또가 그 소문을 듣고 나를 잡아오라고 할 것'이라 여겨 더욱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습니다.

1795년 무렵, 주문모 신부를 만났을 때는 첩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성사를 받지 못하자,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첩을 내보내기도 하였습니다. 2년 뒤 시작된 정사박해 때 체포된 원시보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온갖 문초와 혹형에 맞서 "천주를 섬기고 제 영혼을 구하고자 천주교를 봉행한다."며 당당히 신앙을 증언했습니다.

1799년에 원시보는 감사의 명에 따라 병영이 있던 청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가 덕산을 떠나는 날 아내와 자식과 친구들이 울면서 따라오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하려면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서는 안되네. 모든 고통을 참아 낸다면 기쁨 가운데서 주님과 착하신 동정 마리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네. 그대들이 여기에 있으면 내 마음이 흔들리니 돌아가게. 이성을 잃고 대사(大事)를 그르칠 수는 없네."

덕산에서 이미 두 다리가 부러진 채로 청주에 이송된 원시보는 결국 거둬지는 혹형을 이겨내지 못하고 1799년 4월 17일, 69세를 일기로 순교하였습니다. 원시보가 순교한 뒤 그의 육체는 이상한 광채에 둘러싸인 것 같았으며, 이 광경을 목격한 50가죽 가량이 천주교에 입교하였다고 합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

저는 매일 양심성찰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양심 성찰 중에 어떤 잘못이 떠오르면 그것에 대한 후회 때문에 나 자신이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 같아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개의 삶이 오히려 저를 더 우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수도자가 제자들과 함께 강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명이 깊고 깊은 강물을 바라보며 스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이렇게 깊고 깊은 강물에 빠지면 죽겠지요." 그러자 스승이 대답합니다. "물에 빠지는 것이 너를 죽게 하지 않는다. 물 속에 머무는 것이 너를 죽게 한다." 회개라는 것은 마치 자신이 물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물 속에 있는 데 그것을 모른 채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찰과 회개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물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찰을 하면서 떠오른 과거의 잘못에 그냥 잠겨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성찰 방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도 그냥 물 속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은 한 가지 잘못에 대한 후회가 2분 이상 지속될 때는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악마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성찰이 끝나면 물 밖으로 나와 하느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찰은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좋고, 길게 가끔씩 하는 것은 해롭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매 순간 회개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 권순호 신부 / 주례성당 주임

<전례 상식>

미사 때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전례는 하느님의 구원을 실현시켜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수단이며, 하느님께 대한 공경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내적인 자세나 마음을 표현하는 전례 동작은 전례의 이러한 성화와 공경의 목적과 기능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구원 업적이 다양하듯 이를 표현하는 전례 동작도 다양합니다. 전례 동작 중 서는 자세는 첫째, 존경을 표하는 자세입니다. 둘째, 가장보편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셋째, 부활과 기쁨의 자세입니다. 앉는 자세는 바른 몸가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대와 주의력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내는 정성 담긴 자세입니다. 그래서 전례에서 경청의 자세로 앉는 자세를 취합니다.

◆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